



실습을 마치며...

권해진 / 월간 포장계 기자

경북 과학 대학 산업 포장과에 처음 입학 했을때만 해도 포장이란 단순히 '선물포장', '이삿짐 포장', '박스 포장' 정도로만 알았지 우리의 의식주에 걸쳐 모든 분야가 포장과 관련돼 있다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1년 반 동안 포장에 대해 배웠지만 포장이 차지하는 영역이 워낙 광범위해서 이것만으로는 포장에 대해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실습을 통해 포장의 겉껍질을 벗겨 낸 것 같다. 책상앞에 앉아 백번 듣는 것과는 달리 실습을 통해 몸소 부딪침으로써 포장을 접해 포장의 흐름을 어느정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포장이란 산업 발전에 의거해 포장재 개발, 포장 표준화, 포장 자동화 등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란 생각이 든다.

얼마 전 국제 포장 공정, 포장 기자재전이 2000년 7월 3일~6일까지 4일에 걸쳐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비록 3박 4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포장 산업의 동향을 한곳에서 한눈에 살피고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전시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한국 전

자 공업, 동아기연, 한석유화, 태광산업등과 같이 귀에 익은 업체보다도 생소한 업체들이 많았다.

포장업계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업체 뿐 아니라 뒤에서 성실하게 꾸준히 포장발전에 한 몫을 하는 업체들도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실습기간 동안에 경원산업,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두양정전기산업 등의 회사를 방문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소규모 업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속이 꽤 찬 업체들인 것 같다.

앞에서 끌어주는 버팀목인 경영자를 중심으로 뒤에서 밀어주는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회사를 꾸려 나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

'맨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자리를 잡아 놓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역경과 아픔이 있었겠는가' 하는 안스러운 마음이 드는 반면에 '끈기와 인내심'은 본받을만 한 것 같다.

그러나 한가지 걸리는 것은 이렇게 커져가는 기업도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소규모의 기업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도 큰 기업들에 밀려 그만큼의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보이지 않게 많은 것 같다.

이것은 아직 우리사회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남아 있는 것이다. 우리 포장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이 곧 없어지리라 믿는다. 꾸준히 앞만 바라보며 열심히 일하면 꼭 한만큼의 좋은 결실을 얻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들이 각기 나름대로 포장 산업을 발전시킴으로 포장의 중요성을 강조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줌으로써 우리 포장업계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포장이 발전할수록 포장업체가 더 많이 생겨나 각기 분야에 맞는 단체들을 만들어냈다. 하나를 여러개로 뭉쳐 놓으면 힘이 몇 배나 강해지듯 포장업계는 '한국포장협회'라는 단체가 있다.

'한국포장협회'에서는 회원사들을 관리·보호하고, 전시회 주최 및 참가, 장학금 수여, 월간지 '포장계' 발행 등 보이는 일은 물론, 정보 제공, 업계끼리 친선 도모 자리 마련, 뒤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 주는 등 보이지 않는 일까지도 행한다.

나는 8월 1일부터 '기자'라는 직분으로 이 한국포장협회의 가족이 된다.

처음 기자가 하는 일은 단순한 줄만 알았다. 남들이 취재할 때 같이 취재하고, 남들이 글 쓸 때 같이 쓰는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한 달의 실습기간동안 몸소 부딪히며 포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기자의 역할에 대해 배웠다.

기자란, 글만 잘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글도 잘 써야 되지만 항상 많은 정보를, 남보다 빨리 알아야 되는 것이다. 또한 기사를 통해 같은 업계끼리 좋은 정보를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중간 입장인 것이다.

정보를 제공 할 때는 이 정보가 다른 회사에 미칠 영향을 먼저 생각하고 유익된 정보 일때는 나눠주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기자의 몫이다.

이제 실습기간이 끝나고 수습기간에 들어간다.

앞으로의 각오는 '남보다 더 뛰여', 그래서 '남보다 빠르게' 움직이도록 노력 할 것이다.

한국포장협회의 이름으로 포장업계가 발전하는데 한 몫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아직 사회 생활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고, 마냥 낯설기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살아 나간다면 사회생활에 더 빨리 적응되지 않을까 싶다. ☺

기술원고를 모집합니다.

포장과 관련된 신기술을 발표할 업체와 개인은 '월간 포장계' 편집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실 : (02)835-9041